**도구(春宮) 신사**

우사 신궁의 주요 참배길을 지나는 방문객들은 도중에 몇 개의 작은 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도구(春宮) 신사로, 하치만 신으로 추앙된 제15대 천황 오진 천황의 아들인 우지노와키이라쓰코를 모신 섭사(큰 신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입니다. 닌토쿠 천황이 된 형 오사자키노미코토를 비롯한 우지노와키이라쓰코의 다섯 형제자매들은 조구(上宮, 위쪽 신사) 근처에 있는 와카미야(若宮)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진 천황은 부지런한 우지노와키이라쓰코를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황의 장남은 오사자키노미코토였기 때문에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자신이 황위 계승 서열 1위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진 천황이 숨을 거둔 후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형에게 천황의 자리를 이을 것을 권유했지만, 오사자키노미코토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싶어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공식적인 통치자가 없는 상태로 수년이 지났을 무렵,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나라의 앞날을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그의 형이 천황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우지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총명하고 지적인 학생이었던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오늘날에도 학문의 신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도구 신사는 우지노와키이라쓰코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15세기 이전 현재의 자리에 창건되었지만, 후에 게구(下宮, 아래쪽 신사) 가까이로 옮겨졌습니다. 주홍빛으로 칠해진 현재의 신사는 1936년에 원래의 장소에 재건된 것입니다.